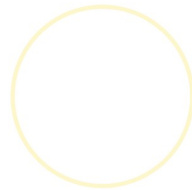


위드달withDAL

사람과 사회를
예술로 연결합니다



Art as everyday practice

비전과 철학

비전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예술의 주체가 되는 포용적 문화 환경을 만듭니다.

철학

위드달은 예술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참여와 관계의 과정**으로 확장합니다.

완성된 결과물보다 **과정 속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계

아이와 어른, 장애와 비장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넘어
누구나 창작자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공감하는
안전하고 열린 예술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예술을 삶 가까이, 모두의 언어로

Art as everyday practice, bringing art closer to everyone



위드달은 예술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참여와 관계의 과정으로 확장하는
소셜아트 기반 예술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예술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아이와 어른, 장애와 비장애, 경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함께
만들고, 움직이며, 이야기하는 예술을 지향합니다.

”

위드달은 예술을 통해 사회를 연결하고,
공동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핵심 가치

01. 소셜 아트 (Social Art)

예술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연결합니다. 예술을 감상의 대상에서 참여와 소통의 매개로 확장하여, 사회적 이슈와 공동체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해결합니다.

참여

소통

공동체

02. 일상 속 예술 (Art in Daily Life)

특별한 공간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술을 만납니다. 미술관이나 공연장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상화

접근성

지역성

03. 모두를 위한 예술 (Art for Everyone)

누구나 예술의 주체가 되어 함께 창조하는 경험을 나눕니다. 아이와 어른, 장애와 비장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평등하게 예술에 참여합니다.

포용

평등

다양성

사업 영역

위드달은 문화기획, 커뮤니티 프로젝트, 예술놀이, 지역 축제의 네 영역에서 사람과 기억, 공간을 잇는 특화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1

커뮤니티 워크숍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관계를 시작하는
예술 기반 워크숍

2

커뮤니티 프로젝트

개인의 경험을
지역의 이야기로 확장하는
문화기획 프로젝트

3

예술놀이 프로젝트

일상과 상상을 연결하는
참여형 예술놀이 프로그램

4

지역 축제

지역의 사람과 공간을
무대로 만드는
참여형 축제 기획

"위드달의 모든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회를 예술로 연결합니다"

위드달 프로젝트

예술을 통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위드달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참여와 관계의 과정으로 확장합니다.

위드달withDAL은 예술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참여와 관계의 과정**으로 확장합니다. 전문성의 벽을 낮추고, 일상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완성된 결과물보다 **과정 속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참여자 한 명 한 명이 예술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프로젝트 특징

1

참여 중심 설계

관람이 아닌 참여, 설명이 아닌 경험을 통해 예술과 만납니다.

2

지역사회 기반

지역의 공간, 이야기, 사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운영됩니다.

3

세대 통합 지향

아이, 어른신, 가족, 이웃이 함께 참여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눕니다.

4

과정 중심 운영

완성보다 과정을, 결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커뮤니티 워크숍

나 어릴 적에

When I Was Young

— 세대를 잇는 기억의 워크숍

<나 어릴 적에>는 어르신들의 기억에서 출발해 아이들의 몸과 놀이로 이어지는 워크숍 중심 세대 통합 프로젝트입니다.

워크숍은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놀이를 천천히 꺼내는 시간으로 시작됩니다. 골목에서 놀던 방식, 손으로 만들던 장난감, 그 시절만의 규칙과 웃음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어르신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아이들은 그 기억을 직접 해보고 변형하며 지금의 놀이로 확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기억은 회상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만드는 현재의 경험이 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놀이를 발견하고, 어르신은 자신의 삶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 어릴 적에>는 이야기를 나누고, 몸으로 해보고, 함께 웃는 워크숍을 통해 세대 사이에 단단한 기억의 다리를 놓는 문화예술 프로젝트입니다.

나 어릴 적에



<나 어릴 적에>는 커뮤니티 워크숍을 확장한 **워크숍 기반 어린이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기억과 놀이를 워크숍을 통해 발굴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축제의 형태로 지역에 공유합니다.

워크숍에서 어르신은 **기획자이자 선생님이** 되고, 아이들은 **참여자이자 배움의 주체가** 됩니다. 만들어진 놀이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집니다.

워크숍에서 축제로, 이야기에서 경험으로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 함께 노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대 통합 어린이 축제입니다.



이야기함

커뮤니티 프로젝트



〈이야기함〉은 고립된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천천히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예술 기반 기록 프로젝트**입니다.

말로 전해진 기억은 예술을 만나 새로운 형태로 남겨집니다. 40년 전의 사진은 움직이는 이미지가 되고, 한 사람의 삶은 한 권의 그림책과 영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프로젝트 진행 프로세스

- 1 어르신 예술 워크숍**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뢰를 쌓는 예술 워크숍
- 2 이야기 수집**
개인의 기억, 사진, 경험을 기록하고 정리
- 3 그림책 제작**
어르신의 이야기를 시각 언어로 재구성한 그림책 제작
- 4 영상 제작**
사진과 목소리, 움직임을 결합한 기록 영상 완성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의 기억과 시간이 지나간 과거가 아닌 **지금, 여기의 가치 있는 이야기**임을 드러냅니다.
이야기를 듣고, 표현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존재의 의미와 삶의 존엄을 조용히 조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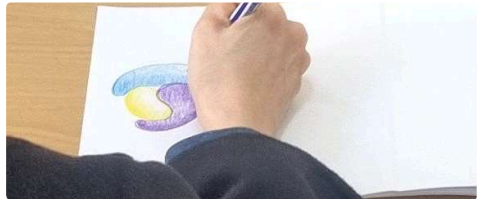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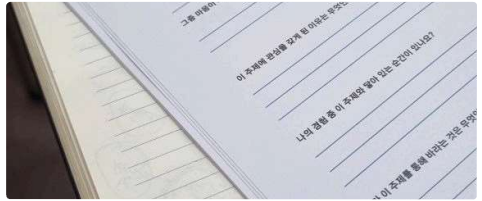
엄마는 예술가



'엄마'라는 이름 너머의 나와, 지금의 나를 예술로 마주하는 워크숍

이 워크숍은 잘 그리거나 잘 만드는 수업이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잠시 미뤄두었던 감정과 생각, 말로는 다 전하지 못했던 하루의 마음을 색, 선, 움직임, 소리 등 다양한 예술 언어로 풀어냅니다.

참여자자는 양육자가 아닌 창작자로서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완성보다 과정에 집중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합니다.



예술을 통해 '나'를 다시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창작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커뮤니티 프로젝트

틈 사이 놀이터

일상의 틈, 공간의 틈, 사람 사이의 틈에서 발견하는 예술 놀이

<틈 사이 놀이터>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의 '틈'에 주목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의 자투리 공간, 바쁜 하루 속 잠깐 멈추는 시간의 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거리 까지.

이 프로그램은 그 모든 '사이 공간'을 머물고, 상상하고, 함께 놀 수 있는 창의적인 예술 놀이터로 전환합니다. 아이들은 틈을 채우는 대신 들여다보고, 어른들은 멈춰 서서 관계와 공간을 새롭게 바라 보게 됩니다.

<틈 사이 놀이터>는 일상 속 작고 사소한 틈에서 시작해 상상과 감각,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열린 예술 놀이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든 아이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는 발달장애 어린이가 예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통합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잘하는 것'이나 '정해진 결과'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감각, 선택, 표현 과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말 대신 몸으로, 선 대신 색으로, 혹은 소리와 움직임으로 자신을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표현의 방식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아이 스스로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는 자기 표현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예술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본 적 없는 바다



아이들의 일상적인 공간이 상상 속의 바다로 변합니다.

익숙한 장소는 어느새 바다 속에 들어온 듯한 공간이 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새로운 바다를 상상합니다.

때로는 암흑처럼 어두운 심해로 내려가 우주와도 같은 깊고 낯선 바다를 탐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이 바다라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천 년 전 바다였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본 적 없는 바다>는 아이들의 일상에서 출발한 작은 질문과 상상이 자유로운 이미지와 표현으로 확장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상상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고, 익숙한 세계를 낯설고 깊게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바다가 걷는 날



우리는 어디에서 온 물방울일까요?

각자의 장소에서 흘러온 물방울들이 이제 하나의 바다로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해양박물관 속 오래된 물방울은 긴 여정을 앞두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새로운 물방울들의 흔적을 하나씩 수집합니다.

참여자들은 물방울이 되어 박물관 안과 밖을 천천히 거닐며 공간에 스며든 이야기들을 만나고, 자신만의 이동 경로와 기억을 남깁니다.



고정된 풍경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하루.

몸과 감각으로 나의 리듬을 따라 걸으며 일상을 낯설게 만나는 참여형 예술놀이 프로젝트

지역 축제

위드달은 지역축제를 보는 행사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경험으로 확장합니다.

축제는 하루 열리고 사라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관계, 일상이 잠깐 드러나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아이, 어르신, 가족, 이웃이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참여하며, 완성된 결과물보다 과정 속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지역축제의 특징

1

공간의 재발견

골목, 마당, 공터, 박물관, 놀이터를 축제의 무대로 전환합니다.

2

참여 중심 운영

참여자는 축제의 주체이자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3

세대 통합

아이, 어르신, 가족,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축제를 지향합니다.

4

지역 이야기 발굴

지역 주민의 기억과 경험이 축제 콘텐츠의 중심이 됩니다.



지역과 함께 호흡하며 사람 사이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축제,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예술이 일상이 되는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축제 기획과 실행

위드달의 지역축제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 축제입니다.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세대 간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축제 모델을 추구합니다.

1

지역 이야기 발굴

주민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와 기억을 수집하고 축제 콘텐츠로 전환합니다.

2

참여형 콘텐츠 기획

세대, 장애, 경험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 기반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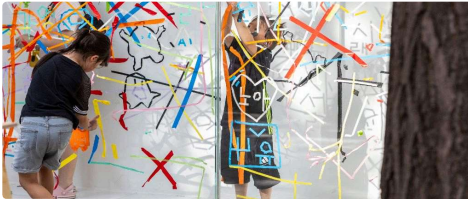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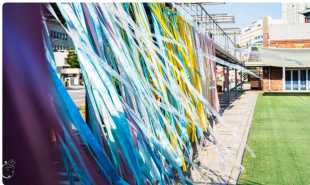
공동체 협력 운영

지역 예술가, 주민, 기관과 협력하여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운영합니다.

4

기록과 아카이빙

축제의 과정과 결과를 사진, 영상, 인터뷰로 기록하여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남깁니다.



위드달의 지역축제는 세대 간 거리를 좁히고,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발견하며, 예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을 만들어갑니다.

withDAL HISTORY

202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선정

(주)위드달 법인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데이터활용 경진대회 아이디어부분 장려상 수상

202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지원사업 선정

인천스타트업파크 빅데이터 · AI 플랫폼 활용 지원사업 선정

인천아트플랫폼 'IAP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 기획 · 운영

2025

인천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서비스사업 선정

인천시 수봉도서관 MOU 체결

어르신들이 만드는 어린이축제 <나 어릴 적에> 개최

(재)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특화거리 <점점점> 지원사업 선정

경력단절 예술인을 위한 <엄마는 예술가> 진행

인천아트플랫폼 'IAP 스트릿 아트 페스티벌' 기획 · 운영

ABOUT withDAL

예술과 사람을 중심으로 연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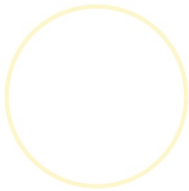


Company	(주)위드달 withDAL
CEO	심현주
Established	2023년 8월 (법인: 2023.09)
Certification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2024.11)

VISION & MISSION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예술 콘텐츠 제작

공동체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기획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누구나 예술의 주체가 되는 포용적 문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web

www.withdal.com

Instagram

@withdal_

e-mail

withdalwithyou@gmail.com